

「제6차 한-유럽연합(EU) 에너지·환경·기후변화 작업반 회의」 개최

- 한-EU 그린파트너십 이행 점검 및 향후 협력 분야 논의 -

- 한민영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은 파올라 팜팔로니(Paola Pampaloni) 유럽 대외관계청(EEAS) 아시아·태평양 부실장과 2024년 10월 10일 「제6차 한-EU 에너지·환경·기후변화 작업반 회의」를 공동으로 주재했다. 외교부에서 개최된 동 회의에서 양측은 에너지, 환경, 기후변화 관련 정책을 교류하고, 한-EU 그린파트너십 이행 등을 포함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.
- 동 작업반은 「한-EU 기본협력협정」에 의거하여 한국과 EU간 기후변화, 청정에너지 전환, 순환경제 등 시급한 현안들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 2018년에 설립되었다.
- 금번 제6차 회의에서 한국과 EU는 저탄소 에너지 전환, 순환경제, 생물다양성 등 환경 보호, 기후변화 대응 강화 등 핵심적인 의제에 대해 양측간 협력 강화를 목표로 정책 동향을 공유했다.
- 에너지 관련, 양측은 2050 글로벌 탄소중립과 파리협정의 1.5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양측의 정책을 상호 공유하고, 에너지 효율성 및 에너지 절감, 글로벌 에너지 안보, 메탄 감축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.
- 우리측은 무탄소에너지(CFE) 이니셔티브와 최근 공식 출범한 CFE 글로벌 작업반 등 무탄소에너지의 국제적 확산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했다.

- 환경협력 분야에서 양측은 순환경제, 대기오염 대응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 등 주요 환경 정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, 올해 개최되는 주요 다자환경협약 회의*의 진전된 성과 도출을 위해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.
 - * 제16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(COP16), 유엔 플라스틱 오염 대응 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(INC-5)
 - 특히, 우리측은 올해 11월 부산에서 개최 예정인 유엔 플라스틱 오염 대응 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(INC-5)의 준비 현황을 설명하였으며, 동 협약의 성안을 위해 EU측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.
- 기후변화 대응 협력 관련, 한국과 EU는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(NDC) 이행 등 2050 글로벌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노력을 소개하고, 올해 11월 아제르바이잔에서 개최 예정인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(COP29)에서 의욕적인 2035 NDC 제출을 위한 메시지를 발신하는데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.
- 한편, 한국과 EU 양측은 2023년 한-EU 정상회담 계기 출범한 한-EU 그린파트너십의 이행을 점검한바, 올해 상반기 동안 배출권거래제, 청정 에너지 등 분야에서 진전이 있었던 점을 평가하였으며, 추가 협력 분야를 발굴하기 위해 향후 지속 소통해나가기로 했다.
- 차기 제7차 회의는 EU측 주최로 내년 중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.

붙임 : 회의 사진. 끝.

담당 부서	기후환경과학외교국 기후변화외교과	책임자	심의관	조계연 (02-2100-7711)
		담당자	사무관	김정아 (02-2100-7858)